

# 시민적 '연애 공론장'의 탄생과 유혹의 서사: 5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김은하\*

## 차례

1. 50년대 문예공론장의 성별투쟁과 동상이몽
2. 도덕의 기초로서의 가정과 이상적인 여성성
3. 연애소설과 남성의 통과제의: 남성의 순애보와 여성독자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50년대 신문소설이 시민적 연애 공론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근대적 시민의 사생활 영역, 즉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험 무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애는 결코 가벼운 소재가 아니다. 계몽된 가족은 근대적 공공영역, 즉 시민사회의 핵심 요소이다. 근대는 가족의 승리라 칭할 만큼 가족을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가족이 근대적 세속화 과정에서 행복의 표상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침실의 자유를 향유하는 한편으로 도덕적으로 가족을 통치하는 개인,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시민은 새로이 부상하는 계급의 표상이었다.

50년대 신문소설은 이렇듯 ‘사적 영역’ 발견을 중심으로 근대 가족의 가치와 이념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나간다. 50년대 신문소설은 구질서의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실험의 장소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였다. 연애는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욕망 간의 충돌을 비판적으로 화해시키기 위한 것, 즉 개개인의 삶 속에 사회의 이상들을 통합시키고 질서의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의 혹은 절차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연애는 사적인 관심과 공적인 관심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연애소설은 연애지침서 혹은 연애계발서이기도 하다. 모범적으로 가족을 이끌어 갈 이상적인 주인공은 누구인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하는 장이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면서도 화려한 가족을 만들어 갈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연애다.

유희는 세속적 행복의 성소인 가족을 이끌어 갈 이상적인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시험하는 한편으로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기 위한 상징적 통과 제의로서 50년대 소설의 가장 대중적인 주제이다. 50년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스스로를 연애하는 인간으로 선언하고 삼각, 사각 등 복잡다단한 짝짓기의 전장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남녀의 연애에 대한 이상은 충돌한다. 남자들에게 연애는 전쟁으로 무너진 가부장제를 재건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어서 부유한 독신남이나 이혼 위기의 남자가 타락한 여자의 유희를 이겨내고 정숙한 여자를 선별해내는 플롯을 취한다. 반면에 여자들에게 연애는 봉건적인 가족 제도 하에서 억눌린 삶을 살아온 어머니들의 인생과 결별하고 가슴 떨리는 새 삶의 무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계기였다. 여성들의 연애소설에 대한 탐식증적 독서와 열렬한 반응은 이러한 판단의 증거이다.

핵심어 : 신문소설, 1950년대, 여성 독자, 근대적 가족, 공론장 등

## 1. 50년대 문예공론장의 성별투쟁과 동상이몽

박완서의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현대문학, 2004)은 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신문연재소설의 위상 및 기능에 관한 궁금증을 촉발하는 동시에 그러한 의문을 풀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준다. 갓 결혼한 새댁인 주인공은 현보와의 약속을 앞두고 설레는 한편으로 두렵기만하다. 현보는 단지 친족이 아니라 전시 하의 공포와 추위를 함께 견뎌 동지이자 미묘한 연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수 부인의 방황을 그려 논란 중인 정비석의 『자유부인』(서울신문, 1954)<sup>1)</sup>은 두려우면서도 혐오스러운 텍스트로 다가온다. 독서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으로 배달된 신문의 연재소설만은 읽지 않는데, 이 '독서하지 않음'은 그녀의 몸과 욕망을 정의하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 혹은 저항의 성격을 띤다. '자유부인'이라는 조롱 섞인 지칭이 바로 그녀 자신을 향하고, 그녀의 진실은 세간의 잣대에 의해 손쉽게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유부인』대신 서양명작으로 꼽히는 『보바리 부인』을 읽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방어한다. 그러나 저항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녀의 남편은 신문소설의 애독자로서, 마치 하루의 중요한 의무인 양 그녀에게 즐거리를 들려주며 이 소설을 둘러싼 격한 논쟁으로 세상이 들썩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은 '폼행지침서'처럼 작용해 그녀는 한껏 멋을 내고 위험한 외출에 나서지만 결국 자신에 대한 쓰디쓴 환멸만을 뒤집어 쓴 채 집으로 귀환한다. 돌아와 한참을 앓고 난 그녀는 당돌하고 되바라진 처녀에서 어머니의 위

1) 이 작품은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 발행부수가 3만에서 9만부로 증가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서울신문사, 『서울신문 50년사』, 1995, 267쪽). 이렇듯 『자유부인』이 신문의 판매고를 높이자 신문사들은 독자 확보용 차원에서 신문소설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신문소설의 통속성이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설의 대중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높아지고 소설가는 여론의 선도자로 위치지어지게 된 듯 보인다. 이를 테면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경향신문, 1957)에서는 이상적 가정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소설가의 불륜과 그로 인한 가정 파탄의 위기가 신문에 공개되어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 모티프가 등장한다.

치로 이동한다.<sup>2)</sup>

이 소설은 5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암시해준다. 먼저 5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대중성은 신문소설이 독자의 말초적 쾌락에 봉사하는 통속적 요소가 아니라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하되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토론함으로써 그에 관해 공통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공통 공간, 즉 공론장<sup>3)</sup>의 기능을 했음을 암시한다. ‘재미’는 평범한 개인들을 ‘公衆’(a reading and writing public)으로 만들어 줄 문제적인 사건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진공의 시간 속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유부인』은 돌출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50년대 한국사회에 문예공론장의 기능 및 위상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sup>4)</sup> 당시 신문소설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문학을 매개로 개인의 수평적인 사회적 교체를 가능케 한 문예공화국의 시

- 2) 그녀는 많은 아이를 낳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늙어간다. 이로써 전쟁과 함께 흔들리던 가부장의 집은 이전보다 더 강고해진 형태로 복원되며, 질서 잡힌 가정 영역을 기반으로 국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 내면 속의 되바라진 처녀는 사라지지 않아 히스테리와 우울증으로 종종 화려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에 가부장적 집은 균열의 징후를 드리우고 있다.
- 3)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이란 자유로운 사적 개인들이 모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행위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념적, 도덕적, 정치적 소통행위의 모델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저,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환 역, 나남, 1991, 95-99쪽
- 4)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유부인』이 연재되는 동안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사이에 이 소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루어졌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황산덕, 변호사 홍정엽, 작가 백철, 소설가 정비석 등이 논쟁의 주요 참여자였는데, 황산덕은 이 소설을 “야비한 인기욕에 사로잡혀서 저속유치한 예로 작문을 희롱하는 문화의 적이요 파괴자요 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비난했고, 정비석은 이들의 주장은 “문학에 대한 몰이해”의 소산이라며 방어했다. 이른바 ‘자유부인 논쟁’은 문학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으로 그 초점이 모아졌지만 최근 들어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해석되고 있다. 정비석과 황산덕은 이 작품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집 나간 노라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것.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지음,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135~144쪽.

대를 열면서 신문을 명실부상한 근대적 미디어의 자리로 올려 놓는다. 각 개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문학, 예술을 이야기함으로써 작품을 상품으로 세속화하고 독자, 관중을 하나의 '공중'으로 묶어줌으로써 시민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보 교환, 의견표현 및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즉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잡지 역시 예술 및 문화 비평의 코너들을 신설함으로써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일련의 평론가 그룹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평범한 개인들은 철학, 문학, 예술을 비판적으로 습득하는 훈련을 통해 여론의 선도자 혹은 교양 담론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50년대 신문소설의 규범적 지위를 발견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공론장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토론의 장소로서, 이를 통해 사회는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공통의견에 다다를 수 있다.<sup>5)</sup> 그리고 이 공통의견은 사람들이 우연히 품게 된 이런저런 관점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비판적 논쟁으로부터 도출된 성찰적 관점이다. 이는 공론장이 규범적인 지위를 갖는다<sup>6)</sup>는 것을 암시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의 출현은 인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시각과 더불어 출현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론을 쫓는 것이 현명할 뿐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추론하는 공중의 한가운데에서 법을 제정하고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장은 정부의 방향을 안내하게 될 합리적 관점들이 정교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가 혹은 정부가 참조해야 할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론장의 이러한 기능은 '공중'의 출현없이 기대할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공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50년대 한국 공론장의 형성은 여성을 매개로 해서 형성된다. 50년대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여성'은 서구적 세속화의 진행에 대한 한국인의

5) 신문 소설을 공론장으로 주목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할 것.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너리티리포트」, 『대중서사연구』 제 26호, 111~150쪽.

6) 찰스 테일러 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2010, 138쪽.

희망과 공포가 맞물리는 한편으로 진보에 대한 공중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당시 상당수의 미디어들은 특집이나 기획을 통해 여성, 특히 현대여성을 주요 이슈로 내세워 근대의 미덕과 위험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서구와 다른 한국적 근대화에 대한 집합적 구상을 만들어 나갔다. 신문연재 소설 역시 민첩하게 ‘여성’을 근대에 대한 앎을 제공해 줄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문제적인 주인공으로 포착한다. 이는 근대성이 전통적인 남성/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성차의 이분법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확실히 여성의 삶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의 출현, 소비주의의 득세, 대중매체의 발달 등에 의해 전근대와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전근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을 통해 드러나는 근대성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등이 뒤섞여 있다. 여성은 근대적 세속화가 가져다 준 자유와 변영의 표상인 한편으로 도시의 오염, 성적 문란, 사회적 위계질서의 붕괴라는 근대성의 어두운 심연들을 가시화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공론장이 여성에 대해 규범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공론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것을 주류 남성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 여성의 공간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문예공론장은 주로 중산층의 사생활 영역을 공적인 토론의 무대로 끌어냄으로써 사적 존재와 공적 존재를 화해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가족, 사랑과 결혼 등 이른바 여성적 영역을 담론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공론장에서 여성은 ‘가독성 있는 공공’의 주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들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었으나 문예적 공론장에는 더 강하게 참여하려 했으며, 또 참여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이는 공론장이 젠더를 둘러싼 인정투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또한

7) 50년대는 여성잡지 등 여성 독자 중심의 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문필 활동을 하는 여성 지식인만이 아니라 수기나 독자 편지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 공중이 탄생한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적으로 저항적이거나 종속적이지 않으며 다소 복잡한 관계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sup>8)</sup>

이 글은 50년대 신문소설이 시민적 연애 공론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근대적 시민의 사생활 영역, 즉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험 무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애는 결코 가벼운 소재가 아니다. 계몽된 가족은 근대적 공공영역, 즉 시민사회의 핵심 요소이다. 근대는 '가족의 승리'라 칭할 만큼 가족을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가족이 근대적 세속화 과정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의 표상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유례없이 가족이 보편적 삶의 형식이 되면서 독신자, 미망인은 새로운 '불우 캐릭터'로 등장한다. 또한 자기만의 침실, 거실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가족을 건전하게 통치하는 개인,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무질서하게 타락하지 않는 시민은 새로이 부상하는 계급의 표상이었다. 50년대 신문소설은 이렇듯 새로이 부상한 사적 영역을 배경으로 근대 가족의 가치와 이념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나간다. 50년대 신문소설은 구질서의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실험의 장소였다. 연애는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욕망 간의 충돌을 비판적으로 화해시키기 위한 것, 즉 개개인의 삶 속에 사회의 이상들을 통합시키고 질서의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의 혹은 절차의 성격을 띤다.<sup>9)</sup> 그러므로 연애는

---

8) 최근 들어 하버마스의 공론장 연구는 공론장을 백인 남성 부르주아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공론장에 다양한 정체성들이 경합하고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형성과 시민사회의 개념에 중요한 이론이지만, 어떤 지식과 교양,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라는 특정 계급에만 한정되어 평민과 여성을 배제해 버린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벌턴의 저항적 공중들이 서구 남성 부르주아 중심의 폐쇄적이고 통합적이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배적 공론장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도전 가능성을 강조한다. 김수정·김예란, 『사이버 공론장들의 젠더성과 담론구성의 특징』, 『미디어, 젠더&문화』 10호, 2008.10, 5~36쪽.

9) 『사생활의 역사 4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에 의하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사생활이 발견됨으로써 애매하게 겹쳐져있던 공·사영역이 분리되고 사적

사적인 관심과 공적인 관심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연애소설은 연애지침서 혹은 연애계발서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범적으로 가족을 이끌어 갈 이상적인 주인공은 누구인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장이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면서도 화려한 가족을 만들어 갈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연애다. 그리고 유혹은 세속적 행복의 성소인 가족을 이끌어 갈 이상적인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시험하는 한편으로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기 위한 상징적 통과제의로서 50년대 소설의 가장 대중적인 주제가 된다. 이렇듯 50년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을 연애하는 인간으로 선언하고 삼각, 사각 등 복잡하고 치열한 짝짓기의 전장으로 뛰어들지만 남녀는 서로 다른 꿈을 꾸었던 듯하다. 남성들에게 연애는 전쟁으로 무너진 가부장제를 재건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었다. 소설의 가장 흔한 구도는 부유한 독신남이나 이혼 위기의 남자가 타락한 여자들 사이에서 정숙한 여자를 찾아내는 구도로서, 연애는 이른바 ‘아프레 질’(전후과 여성)들을 처벌하고 교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자들에게 연애는 봉건적인 가족 제도 하에서 억눌린 삶을 살아온 구여성의

---

영역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사생활이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사생활이 없었다가 아니라 새롭게 ‘자각’되었다는 뜻이다. ‘홈 스위트홈’에 대한 관념이 출현해 가정은 행복의 보편 표상이 된 것이다. 저자들에 의하면 혁명에 공적 영역의 확대와 일상 생활의 정치화가 시작되자 그 반작용으로 개인은 자기내면으로 움츠러들게 된다. 그리고 하인과 조부모 등이 영겨있는 가족은 보다 분명하게 한정된 규모로 축소되었다. 또한 영국의 중산층 가정 문화는 사생활에 대한 매혹을 자아냈다. 일련의 계기들로 인해 익명의 거대한 인구 집단의 사회에서 노동, 여가, 거주 등이 분리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런데 가정이 역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장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집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자리한 야만적 숲의 유혹을 잠재운다.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집은 자기 내부에서 질서, 예절, 열정을 조직하기 때문에 도망, 상실, 결핍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준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792년에 집은 침해불가능한 구역으로 선언되고 1795년에는 야간 가택 수색이 금지된다.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편집, 『사생활의 역사 4: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전수연 역, 새물결, 2002.



인생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가슴 떨리는 새 삶의 무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계기였다. 여성들의 연애소설에 대한 탐식증적 독서와 열렬한 반응은 이러한 판단의 증거라 할 것이다.

## 2. 도덕의 기초로서의 가정과 이상적인 여성성

신문연재소설계의 간판급 작가인 정비석에게 근대는 낯은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속화 과정으로서, 환호해 맞이할 역사의 진전이다. 특히, 50년대 초기작들은 합리성, 시장의 등장, 우상의 파괴, 계몽주의, 과학혁명 등 근대의 발명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근대 국가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후기작으로 갈수록 과거 혹은 전통에 대한 향수풍조가 우세하지만 초기작들에는 봉건 사회에 대한 깊은 환멸과 현대에 대한 승배의 감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sup>10)</sup> 특히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기업을 주요한 소설적 무대로, 공학도를 이상적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에서 드러난다. 정비석에 이르러 이윤활동 혹은 재산추구는 당연한 개인적 권리로서 발견된다. 그의 주인공들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탄생'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 이재에 밝은 냉철한 태도 등을 보여준다. 소설사에서 통상적으로 막대한 '부'나 '기업가적 자아'는 속물의 증거로 치부되기 십상이지만 정비석 소설에서는 건전명랑한 현대인의 자질로 평가된다.<sup>11)</sup> 『민주어족』(한국일보, 1955) 등 50년대 초기 소설들은

10) 정비석의 『낭만열차』(한국일보, 1956)에서 물리학 교수는 고소설을 즐겨 읽고, 점을 보는 습성이 있는 아내를 극도로 혐오한다. 그러나 만물을 과학적으로 관찰, 분석하던 주인공도 장년의 나이에 이른 까닭인지 전통, 첫사랑, 순결 등에 관한 신비주의적 외경의 태도를 보여준다.

11) 명분의 사회인 증세에서 돈은 인간의 고매한 정신을 흐리는 사악한 유혹으로 경멸과 경계의 대상이었다면 해방과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충격은 돈 혹은 경제 활동에 대해 긍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비석은 이념이나 명분 혹은 가치보다 실용적 혹은 실증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프래그머티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

당대 한국 정부의 정치적 후진성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까닭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제혁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는 시장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다른 한편으로 친밀성 영역의 혁신을 열렬히 설득한다. “결혼생활이 없는 삶은 지옥이다”(『청춘산맥』<sup>12)</sup>, 388쪽)는 서술이 암시하듯이 가정이 행복의 성소로 부상하면서 구가족의 해체와 근대적 가족의 구축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이념 혹은 추구 서사가 된다. 독신을 ‘사회 악’으로 취급하고 미망인의 재혼 문제를 사회가 풀어야 할 공공의 이슈로 주목하는 등 성을 천부적 권리로 선언하고 가정을 그러한 욕망을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근대적이다. 『청춘산맥』은 비록 전쟁미망인을 과잉성애화함으로써 풍속의 무질서를 야기하는 사회적 오염원으로 지목하지만, 전쟁미망인 경숙의 재가를 천부인권의 차원에서 조명한다. 무엇보다 여주인공 경란이 습관적으로 외도를 일삼는 남편 이흥태를 총으로 쏘는 사건을 통해 한국 가정의 타락성을 고발한다. 그리고 법정 드라마의 형식을 통해 경란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명함으로써 가정비극을 방조하는 법 개정의 필

---

준다. 이제 사업가는 속물부호나 호색한적 욕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 아니라, 건실한 새시대의 주인공이다. 실제로 『민주어족』의 사업가인 현전무, 대영 제약회사의 사장 등은 긍정적인 인물에 속한다. 그러나 ‘사업가’라는 직업이 긍정적으로 재조명되었다는 것보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업가적 기질을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옥란의 근무처인 무역회사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버는 일에 열정을 발휘하는데, 이들의 금전 추구를 향한 당당한 태도는 영사기 에피소드에서 잘 드러난다. 사장인 현전무는 현대인의 문화생활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깨닫고 옥란을 통해 평소 그녀를 사모해온 강춘배가 일본에서 들여온 영사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영사기의 매매와 관련해 이들은 모두 각자 손해보지 않을 셈법을 꺼내 놓는다. 강춘배는 일본에서 구입한 영사기를 현전무에게 칠천만원에 팔아달라고 옥란에게 부탁하고, 현전무는 파는 사람이 밀리지 않을 거라며 옥란에게 오천만원을 건넨다. 그러한 과정에서 ‘코미손’ 경제학이 등장한다. 현전무는 정당한 대가라며 자신의 부하직원인 옥란에게 코미손을 지불하고, 강춘배 역시 옥란이 코미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12) 작가의 회고에 따르면, 『청춘산맥』은 1949년부터 경향신문에 연재되었으나 전쟁이나 집필이 중단되고 원고도 분실되어, 약 일 년이 지난 후 기억을 되살려 다시 완성한 작품이다.

요성을 역설한다. 소설은 경란과 그녀의 변호사였던 서준호를 각각 타락한 배우자로부터 떼어내 결합시키는 파격적인 결말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킨다. 이 새로운 가족은 성과 사랑을 일치시킴으로써 일부일처제의 법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다.

『청춘산맥』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상이 확산되면서 혼인관계가 폭넓은 친족관계로부터 분리되어 부부 중심의 결혼 생활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등 사생활 영역이 근대적으로 정비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부부의 애정은 최초로 자녀들에 대한 헌신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가정은 일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이 되었으며 작업장의 도구적 성격과 달리 정서적 돌봄의 공간이 된다. 이와 함께 성은 근대적 가정의 행복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섹슈얼리티는 임신과 출산, 즉 생식의 고리로부터 해방되고 정서적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기 근대적 육체의 관능은 조강지처가 있는 기혼남과 카페의 여급 혹은 신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나 구할 수 있는 곳, 즉 의무나 약속과 배리된 곳에 자리했다. 즉 관능은 부부 속에 자리잡지 못했다. 그러나 50년대 들어 부부의 침실은 생식이 아닌 쾌락의 장소로 발견된 것이다. 정비석은 여성들을 향해 부부의 성욕을 인정하고 당당히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의 주인이 되라고 조언한다. 이렇듯 욕망을 가정 영역 속에 위치시키는 가운데 성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공창제가 폐지되고, 간통이 쌍벌죄로 규정되고(1953), 중혼이 금지되고(1958), 축첩 행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역사상 본격적인 일부일처제의 막이 오르게 된다.<sup>13)</sup>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공공 윤리의 기초로서 가족이 재발견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유혹은 주인공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물로 가르는 새로운

13)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 49집(14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12, 211~229쪽.

시험대 혹은 바로미터이다. 50년대 신문 소설의 대다수는 유혹의 플롯을 취한다. 소설 속 이흥태가 부정적인 인물인 것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교양’이 부족하고, 자기의 내면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법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이든 물질이든 소설 속 인물들은 유혹에 노출되고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 서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렇듯 근대적 세속화의 과정이 가져올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신성한 가치의 담지자가 되도록 기대받는 한편으로, 여성의 욕망에 대한 가부장적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sup>14)</sup>

정비석의 『여성전선』(영남일보, 1952)<sup>15)</sup>은 명랑쾌활한 현대여성을 등장시키며 근대성의 해방적 힘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여성 계몽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비록 선언의 형태이지만, “여성들이 실업계에서 자꾸 발전을 하면 우리 남자들의 활동무대가 좁아져서 걱정이겠는걸!”이라는 현전무의 말에 주인공 옥란은 “그렇게 되면 세상이 훨씬 명랑해 질거예요. 우리 사회는 남성 만능이기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생각해요!”(21쪽)라고 응수한다. 무역회사의 직원인 옥란은 명랑쾌활할 뿐 아니라 셈이 빠른 현대여성이다. 그녀는 강춘배가 일본에서 구입해온 영사기를 사장에게 팔아주는 대가로 “코미손”을 챙기며, 남자들의 구애를 거절하면서도 선물은 챙기고 반례로서 적당한 상품을 선물해줄 만큼 영리하다. 옥란은

14) 50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은 공적인 생활을 통해 진취적인 자기가 되는 한편으로 가정이 주는 은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집이 삶의 전부였고 타고난 여성성의 자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사생활은 가정 경제를 함께 꾸리는 동반자 관계였던 부부를 남자가 가장이 되고 여자와 아이가 그에게 의존하는 종속적 관계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남성은 공적인 일과 관련해 존재가 규정되고, 여자들이 어머니 노릇과 가사 일을 전담하는 성역할분업은 종교적인 함의마저 띠게 된다. 시장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정이라는 도덕적 세계와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시장의 파괴적인 경향을 순화시킬 수 있는 순수의 상징이 되었다.

15) 이 작품은 영남일보에 연재(51.1.1~7.9)되다가 52년에 한국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전쟁미망인인 자신의 언니 보영과 함께 여자들을 남자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여성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잡화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그녀가 결혼보다는 자립을 더 소중한 가치로 꼽고 있음을 암시한다. 소설은 잡화점에 면접을 보러 온 가모장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을 충실히 들려줌으로써 가부장적인 사회 속의 여성의 빈곤과 소외문제를 제기한다. 미망인 보영을 퇴폐적인 이미지의 다방마담이 아니라 유능한 경영자로서 묘사한 것, 그녀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한 죄의식이 없으며 재혼을 하되 첩이 되지 않겠다는 등 자기 나름의 인생철학을 가졌다는 점은 미망인을 과잉성애화하거나 유약하게만 그려온 재현의 가부장성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이들의 여성전선, 즉 잡화점을 통해 소외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존심도 찾자는 운동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종결되고, 옥란의 연애담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더불어 영리한 현실주의자인 옥란은 공학도 전우현과 연애하면서 사랑 밖에 모르는 순응적인 여성으로 변모해간다. 노예적인 사랑의 청산을 외치며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현대적 연애의 이상을 추구하던 옥란은 왜 당돌한 매력을 잃고 약해져 버린 것일까? 애초 연애에서도 주체적이었던 옥란은 점차로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전략해간다. 그녀는 전우현에게 마음이 향하자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고 함께 호떡을 먹는 데이트 전략을 실현할만큼 발칙했지만 전우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청순가련한 여성으로 변모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불평등하고 곤핍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화려한 미래의 시간을 선취해오겠다는 신념과 의지로 충만한 50년대식 낙관의 문은 닫히고 만다. 작가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한마담 박멸론'과 '현대여성 혐오론'을 외치는 보수주의자인 전현무에게 연애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자립적이고 자신만만한 현대여성들에 대한 통제권을 휘두르고 싶어한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신정조, 신여성론 등을 위시로 전란으로 약화된 가부장제가 강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 3. 연애소설과 남성의 통과제의: 남성의 순애보와 여성독자

연애소설은 주로 이상적인 남녀 커플의 순애보를 그리는데, 이렇듯 독자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사랑담의 중심에는 고결한 품성과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다. 연애소설은 캐릭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순결한 여성 주인공이 겪는 고통에 대한 대중 독자의 감정 이입을 유도함으로써 순결의 미덕 혹은 가치를 확인케하는 대중적 송고 장르이다. 연애소설은 남성독자에게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동경을 자아내고, 여성독자에게는 품행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즉, 연애소설은 여성성의 규범을 만들어 내는 문화적 각본으로서 그 구체적인 핵심에는 정조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연애소설이 여성독자를 수용자로 상정하고, 여성의 몸과 성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파놉티콘’인 것은 아니다. 다수의 연애소설들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정조를 허물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애정을 간직한 남자의 순애를 이야기한다. 연애소설이 여성 수용자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품행방정한 여주인공 때문이 아니라,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순결을 지키는 남성 캐릭터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연애소설을 전란으로 무너진 성의 질서를 바로잡고, 여성들을 가부장적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발명품으로 보는 해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연애소설은 배우자상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근대 가정을 상상하고 합의하는 근대적 ‘여성 살롱’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정되고 발명되는 것은 여성 혹은 여성성만이 아니다.

신문연재소설의 대표작가인 김말봉의 『푸른 날개』(조선일보, 1954)는 얼핏 보기에 가부장적 서사 구조를 구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권상오는 녹파여고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역사교사로서 미남일 뿐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건전한 가치관의 소유자인데, 남한에 혼자 나와 있다가 휴전이 되어 부모는 물론이고 아내의 생사조차 몰라 독신으로 지

낸다. 이 소설은 흡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의 첫 대목처럼 젊고 건강한 혼인 적령기의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일이라는 듯 권상오를 중심으로 다소 복잡한 연애담을 들려준다. 권상오는 부형인 정혜진의 초대를 받아 한국사회의 상류층 혹은 문화인들의 사교클럽에 발을 디디게 된다. 이 사교클럽은 당시가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궁기와 재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호화롭고 풍요롭다. 립톤 흥차, 양담배, 초콜렛 등 고가의 외국산 기호품을 비롯해 편육과 도미찜 같은 성찬이 즐비하고, 왈츠에 맞춰 춤을 추거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는 문화적 교양의 장이기 때문이다. 정혜진의 집은 사치의 감각만이 아니라 은밀한 관능이 깨어나는 비밀스러운 사교 클럽의 기능도 한다. 권상오는 이 곳에서 사치성 소비재가 선사하는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상류층 여자와 복잡미묘한 관계를 맺으며 관능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권상오는 주인 자리에서 여러 여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관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서사의 중심에 서서 여러 명의 여성 배우자 후보들에 둘러싸여 그녀들을 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치 여자들은 대기표를 들고 초조하게 춤을 출 기회가 자기에게도 오기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듯 여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운명인 양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고 인품이 고결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사랑에 빠지고, 그를 욕망의 대상으로 떠받든다. 정혜진 여사의 딸딸 추백련, 이혼녀 '미쓰 현', 피아니스트 한영실, '지혜'의 마담 윤지순, 은행원인 송현숙은 모두 이렇다 할 교제 기간을 갖기도 전에 권상오에게 한 눈에 반한다. 그리고 그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송배로 이상화함으로써 시종여일한 애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실 이 소설에서 연애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권상오가 아닌 여자들이다. 권상오는 결혼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열정을 결여한 데 반해 여성들은 제 각각의 뚜렷하고도 절실한 동기로 그를 욕망하고, 그의 여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이다. 권상오가 여성을

선택하는 주체의 자리에 서 있고 여성들은 선택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기실 연애를 끌고 가는 것은 여자들의 욕망이다. 나아가 여자들 사이에서 권상오가 교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상오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미스 현'은 자신이 한영실과의 경쟁에서 졌음을 자인하며 그를 그녀에게 보낸다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하며, 한영실은 권상오와 결합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그와 백추련을 맺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권상오를 중심으로 다섯 명의 여자가 엮힌 이 다각 연애의 엮기성은 결혼적령기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할 뿐 아니라 남성성의 권위가 추락한 50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불안을 암시한다. “똑똑한 사내들은 모두 전장에 나가서 죽고 병신되고……”(126쪽)라는 누군가의 탄식어린 말은 이러한 판단을 증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듯 정력적인 ‘다각 연애’는 스스로를 연애하는 인간으로 선포하는 시대, 즉 연애의 민주주의의 도래와 개인의 자유감을 반영한다. 나아가 사랑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여성욕망의 적극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50년대를 단순히 가부장제 사회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기력하게 선택되고 배정당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여성들의 소망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전후’, 즉 가부장권의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등장한 억척여성들의 시간의 안쪽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이상적 상에서 남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한 예로, ‘미스 현’은 그 이름과 달리 전혀 ‘취미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외도에 대한 처벌로 결혼과 남편을 미련없이 걷어차버린 이혼녀이지만, 권상오를 만나 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자진철회하며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계락을 짚는다. 유능한 사업가인 그녀에게 권상오는 ‘취미가 같아야 한다’는 근대적 결혼관을 만족시켜주는 상대이다. 추백련은 갑부인 정혜진 여사의 장녀로 재산은 많지만 여자들만 있는 가정이 허전해 데릴사위 역할을 할 배우자를 찾는 중이다. 이 다각 연애에 뛰어난 여자들은 피아노 교습으로



생계를 꾸리는 한영실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에서는 대중소설의 고질적인 이분법, 즉 성녀와 악녀 캐릭터의 경계가 명확히 지켜지지 않는다. 성녀와 악녀를 가르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능동성과 수동성이라고 한다면, 주인공 한영실은 이 분법적 범주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이상적인 아름다움, 금욕적 삶의 태도, 보수적인 성윤리 등 그녀는 관습적인 연애소설에서 주인공이 될만한 자질을 갖춘 듯보이지만 피아노 연주회 초대권이 생겼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권상오를 '납치'하듯 빼내오고, 더 이상 여자 혼자서 살아가기 고달프다며 대담하게 프로포즈하는 고백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랑을 위해서라면 도덕을 저버리는 맹목적인 욕망의 소유자, 즉 '아프레 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욕망의 진탕에서 주체성과 성찰성을 잃어버린 이는 권상오이다. 또한 한영실은 갈등하고 고뇌하는 주체로서 욕망과 도덕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권상오와 김상우 사이에서 망설이며 김상우와 결혼함으로써 현실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추백련의 피아노 교사로 입주해 그녀와 결혼한 권상오의 곁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이다. 권상오는 그녀가 사랑하는 이상적인 남자이지만 그에게는 아직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아내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김상우는 그녀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상적 배우자 상에 미달한다.

소설은 한영실과 권상오를 맺어주기 위해 다소 복잡하고도 억지스러운 절차를 밟는다. 한영실과 권상오의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가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영실과 김상우의 결혼식은 김상우의 부도덕성이 밝혀져 이루어지지 못한다. 외향선원인 김상우는 밀수꾼이자 미스 현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난봉꾼이기 때문에 한영실의 배우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이상적 가정의 조건이 배우자의 성적 순결성에 있으며, 그것은 곧 근대 국가의 도덕성과도 연결된 문제라

는 암시를 읽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설은 권상오의 처 탄실이 그가 추백련과 결혼하는 날 등장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을 결합시킨다. 탄실의 사망으로 인해 한영실은 첩이 아니라 당당히 본부인이 된 것이다. 또한 권상오는 결혼식 날 교통사고로 당해 다리를 잃은 불구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한영실이 가질 수 있는 남자가 된다. 추백련이 다리를 잃어버린 권상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상오의 잃어버린 다리는 단순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아내-여성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처벌로 암시된다. 권상오는 복에 두고 온 아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손쉽게 부재처리해왔을 뿐 아니라 정조만 허물지 않았을 뿐 여러 여자들과 유희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인어공주가 성인여성이 되기 위해 목소리와 다리를 잃듯이 근대적 스위트 홈에 들어가기 위해 남성들은 특권의 포기 및 상실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장덕조의 『격량』(경향신문, 1957)에 오면 여자들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한 남자들의 통과 의례는 더욱 혹독해진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고학생인 한은주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프랑스 유학파이자 대학강사인 백창렬은 교양 부르주아지로서 은주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은주는 부유한 백창렬이 자신을 동정할까 두려워하는 한편으로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세속적 거래와 동질적인 것이 될까 우려스러워 그가 그녀가 운영하는 야학교실에 보내온 '난로'조차도 되돌려 보낼 만큼 결벽증적이다. 은주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백창렬에게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은주가 백창렬에게 마음이 끌리면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화가이자 전쟁미망인인 추련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백창렬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한 투기를 시도한다. 그는 아프레 길들의 간계에 걸려 약을 먹고 정릉의 호텔에 납치되어 추혜

런과 밤을 함께 보내는데, 모든 것이 덧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주에게 간다. 그러나 약이 덜 깬 탓에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그 후유증으로 죽는다.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는 그녀의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프레 걸'은 육체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사랑을 순도 높은 감정이 아니라 물질적 향락을 위한 거래로 받아들이는 인간 군상으로 서구화와 도시 문화의 위협을 경고하고 여성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50년대 근대화 담론이 발명한 이름이다. 아프레 걸은 연애의 타락을 환기시킴으로써 건전한 풍속의 사회 건설을 향한 계몽적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해 도구화된 존재인 것이다. 50년대 소설의 대다수는 마치 타락한 문화의 원인 요소를 제거하듯 아프레 걸들에게 사랑을 희롱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한다. 아프레 걸들은 죽거나 혹은 살아도 죽음 이상의 수치를 견뎌야 하며, 건전한 인물로 교화되기 위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만 한다. 여성 작가들의 연애소설들에서도 '아프레 걸'은 무분별한 방종의 아이콘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명랑해야 할 연애를 타락한 문화의 일부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문제적 인물로 지목된다. 그녀들에게는 '막장극'을 연상시킬 만큼 추잡한 욕망과 험잡 그리고 배반으로 고결한 품성의 남자 주인공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거나 혹은 치밀한 각본으로 추잡한 덧을 놓아 함정에 빠뜨리는 역할이 주어진다. 『격랑』에서도 아프레 걸들은 매우 요란스럽게 활동하며 선남선녀의 결합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활약한다. 그러나 욕망 혹은 순애때문이든 사랑에 능동적인 여성인물들은 성녀와 악녀의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성을 통해 통치성으로서의 아프레 걸 담론을 내파하는 측면이 있다.

#### 4. 맺음말

신문연재소설의 서사적 목표는 사회의 법칙과 결혼, 공적 존재와 사적

존재를 화해시키는 것으로, 연애와 결혼은 사적인 관심과 공적인 관심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차지한다.<sup>16)</sup> 이는 50년대 공론장에서 문예가 핵가족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공개성을 지향하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한다. 즉, 문학은 개인성이 충족되는 핵가족을 탄생시킴으로써 당대 한국 사회의 세속화(secularization)<sup>17)</sup>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사인화된 개인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을 극복한 '공중'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sup>18)</sup>

그리고 연애소설은 신성한 것들이 휘발되어 버리고, 화폐생활이 보편화됨으로써 모든 것이 수량화되고 동질적인 일상적 시간이 되풀이 되는 근대 혹은 세속도시에서 사적 개인의 타락을 막는 한편으로 신성한 시간의 경험을 향유하기 위해 근대가 고안한 발명품이었다. 연애소설의 주제가 '유희'인 까닭은 세속화는 신성한 삶의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타락을 유도하거나 퇴폐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성적, 물질적 유희에 맞서 사랑을 지키는 남녀 주인공의 연애담은 덧없는 시간 속에서 충만한 삶의 감각을 되돌려준다. 그러므로 치명적인 유희과 이에 맞선 주인공의 숭고

16) 주디스 메인, 『사적 소설/공적 영화』, 강수영·류제홍 역, 시각과 언어, 1994, 67쪽.

17) 사회전반의 세속화(secularization)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인 것이 분리되어 나간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대 사회에서는 현실의 질서보다 고차적이고 광대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던 영적 질서나 형이상학적 질서의식이 현실의 공적 질서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 중세나 고대와는 다른 시간 의식이 일반적으로 형성된다. 과거에는 초월적 영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현실을 이데아를 통해 인식하려는 형이상학적 태도가 있었다. 종교적으로 신적 영원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의 질서와 존재, 그리고 시간적 현재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세속화 과정을 경험한 근대 사회에서는 단지 수치를 통해 계산되는 시간 이해만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질적 체험은 불가능하게 된다.

18) 50년대 소설은 본격적으로 욕망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시작한다. 식민지기 대표적인 신문소설인 『무정』에서 소설 속 주인공들은 관능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강간을 당해 찢겨진 옷 사이로 함부로 노출된 영체의 몸은 형식의 욕망을 정지시킨다. 그녀의 육체는 구식 조선의 타락한 제도에 의해 삼켜진 제물이다. 그러므로 지사에게 주어진 길은 욕망을 봉인하고 재난 속의 민족을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50년대의 주인공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육체의 소유자, 즉 육체와 욕망의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들이다.

한 투쟁 등 연애소설의 주요한 의장들은 사회 속에 미만한 압도적인 무의미, 환멸의 기류 등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 연애소설은 이렇듯 근대적 세속화에 맞서 신성한 의미의 지평을 다시 붙들기 위한 과정에서 젠더 투쟁이 일어나는 상징적 장소가 된다. 연애소설은 남녀 모두에게 관능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세속화로 인한 삶의 무의미나 타락을 금욕주의적이고 순결한 여성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여성의 욕망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규율권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연애소설은 중세에 종교가 담당하는 기능이 이제는 개별 가정의 여자들에게 떠맡게 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여성작가들은 이러한 여성성 숭배 풍조에 대해 다소 분열증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녀들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관능을 억누르는 아름다운 여주인공들을 창조하기 위해 공모하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여성적 권력을 쟁취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작가는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크기로 희생과 헌신의 자질을 요구하는데, 이는 주로 남성의 정조 추구 서사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작가들의 소설 속 '아프레 곁'들은 일종의 히스테리 환자로서 과도하게 신성함의 의미가 부여되는 가족, 여성성, 연애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반격을 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말봉, 『푸른 날개』, 형설문화사, 1958.  
 장덕조, 『격량』, 신태양사, 1959.  
 정비석, 『청춘산맥』, 문성당, 1952.  
 정비석,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1951.

## 2. 단행본 및 논문

서울신문편집위원회, 『서울신문50년사』, 서울신문사, 1995, 267쪽.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지음,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135~144쪽.

위르겐 하버마스 저,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1991, 95~99쪽.

주디스 메인 저, 『사적 소설/공적 영화』, 강수영·류제홍 역, 시각과 언어, 1994, 67쪽.

찰스 테일러 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2010, 138쪽.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편집, 『사생활의 역사 4: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전수연 역, 새물결, 2002, 270쪽.

## 3. 논문

김수정·김예란, 「사이버 공론장들의 젠더성과 담론구성의 특징」, 『미디어, 젠더&문화』 10호, 2008.10, 5~36쪽.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과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 49집(14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12, 211~229쪽.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너리티리포트」, 『대중서사연구』 제 26호, 111~150쪽.

## Abstract

### An Epic of the Birth of a Civil 'Love Public Sphere' and Temptation

Kim, Eun-Ha

This paper took notice that 50's serial story assumed the character of a civil love public sphere. Dating is not simple subject matter in that it is the boundaries of privacy which has the character of challenging stage to make a family. The enlightened family is a modern public territory, a key element of civil society. While modern times made a family be usual lifestyle to the point of calling as a victory of family, it is related with which a family became the best symbol of happiness that human being can have during modern secularization. A new symbol of emerging class was the citizen who can control his family, while enjoys his own bedroom and living room, and who does not seek indiscreet desire, while recognizes his desire and does positively economic activity.

50's serial story was making norms as to modern family value and ideology based on such new emerged private territory. 50's serial story was the huge challenging space where breaks up a family in the traditional order and creates a new family. Dating is for healing critically the conflict between general value of civil society and personal desire. It assumes a suggestion or procedures for integrating social ideas in individual lives and allowing recovering order. Therefore, dating may occupy an ambiguous place between private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A love story is

also dating guidebook or dating-help book. It was a debate about who is the ideal protagonist to guide exemplary a family and what must we inspect carefully for choosing a spouse. Dating is the course of finding a spouse who can make a united family, being morally right.

Temptation examined who is the ideal partner who can lead a family that is a sanctum of worldly happiness, while it became the most popular subject of 50's noble as a symbolical rite of passage for being an ideal spouse. The protagonists of 50's novel declared themselves as a dating man, and jumped into the complicated battlefield of complex mating, such as love triangle, a four-cornered. However, the ideal for love between male and female was conflicting. It took the plot that a man resists the temptations of depraved woman, who is a rich unmarried man or being in crisis of divorce, and selects a virtuous woman because dating for men can get again the leadership of gender as reconstructing patriarchal system that was broken due to the war. On the other hand, it for women broke with their mother's life under the feudal family system and seemed a chance to take a great leap that can go on a stage for a new life of trembling heart. It is the evidence that women read greedily a love story and showed an enthusiastic response.

Key words : Newspaper Novels, 1950s, Female reader, Modern Family, Public Sphere etc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